독립정신

47호 2009년 9. 10월호

이 달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꿈

이달의 독립운동

독립을 향한 굴하지 않는 의지 '의열단'

특별 기고-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설립에 즈음하여
-식민주의 청산과 공존의 새시대를 향해

특별기획 9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임시정부가 꿈꾼 복지, 여성, 노동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시우 | 사진작가

- 모스크바인문대학 러시아정교회 예배당 -

1922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 참석을 위해
목숨을 건 여행 끝에 도착한 여운형과 김규식의 숙소 한 모퉁이에서
붉은 벽을 배경으로 서있는 노란 꽃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어두운 지하에 뿌리를 내리고도 해와 바람을 빚어 꽃을 피우듯,
깊은 시련에서도 전망과 수난을 빚어
한 점 혁명의 불꽃을 피워 올리던 당신들의 수고를 생각합니다.

– 시로 읽는 독립정신 –

거사가

안중근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그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웅시(雄視)함이여 어느날에 큰뜻을 이룰고
동풍(東風)이 점점 참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룰지로다
쥐도적(鼠窺) 쥐도적이여 어찌 목숨을 비길고
어찌 이에 이를줄을 알았으리오
시세가 그렇게 하였구나
동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여 대한독립이로다
만세 만만세 대한동포여

해설 : 안중근(1879–1910)
우리 민족사에서 1백년이 의미하는 것은 수난과 투쟁의 아픈 역사였다.
지금으로부터 1백년전인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한국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트린 것은 암울한 민족혼을 일깨운 거대한 서사시였다.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리하여 그의 서른두 살 짧은 삶은 민족의 두꺼운 교과서가 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1910년 2월 7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시면서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겼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끝내 바다로 돌아 가려는 뜻이요
일만 나무의 생동하는 마음은, 꽃을 피우기 위함이다.

– 술회(述懷) –

■ **홍일선** (시인, 대운하반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공동연대 공동위원장)

2009 9*10
통권 47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_
다시 생각하는 우익 | 김지용

06 이 달의 독립운동가_
안중근의 꿈 | 김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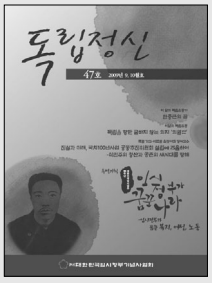
12 이 달의 독립운동_
독립을 향한 굴하지 않는 의지 '의열단'

17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_
임시정부가 꿈꾼 복지 · 여성 · 노동 | 홍성태

23 답사총평_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우리가 꿈꿀 나라 | 김자동

25 답사 화보_
독립정신 답사단 제5기 활동사진

33 답사일지_
제 5기 「독립정신」답사단 일지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조영빈, 정승임, 홍용희, 인솔지, 조수정, 조정의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8 특별기고_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설립에 즈음하여

43 레지스탕스 영화읽기_
〈위대한 환상〉와 〈탈주한 하사〉 | 이두희

47 다시보는 좋은 기사
'현대사 연구 금기'는 독립운동사 말살 의도
| 이덕일

53 청년특집_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백범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V
| 조수정 인솔지

57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59 임정서가_
東農 金嘉鎭傳(동농 김가진전)

다시 생각하는 우익(右翼)

김지용
소설가 / 편집위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미 흔하게 유통되는 개념이라 새삼스러울 리도 없지만, 한편으로 좌익 · 우익에 진보 · 보수다 말이 많은 오늘날, 그 개념들이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우익의 뿌리는 명료하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친일파들은 기타 친미주의자들과 함께 미군정청과 밀착함으로써 여전히 사회지배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미군정 아래 진행된 적산불하와 원조경제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충한 이들은 민족주의 세력 등을 배제한 배타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북측에서 진행된 친일파 척결과 재산 환수에 존립근거를 위협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군정의 반공주의에 편승하여 광기어린 반공의 선봉에 섰다. 그리하여 이들은 마침내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고 백범을 암살함으로써 우익 파시즘의 무소불위 권력을 창출해낸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그 연장선으로서, 재벌 위주의 성장주의 경제체제는 이들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이들은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물리력을 동반한 반공주의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었다. 이들이 들이대는 이념의 잣대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좌익'이었으며 자신들의 존립에 위험한 사상은 모두 '좌'였다. 좌는 우의 상대적 개념이 아닌, 우의 기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대상이었다.

태생과 성장이 그럴진대 대한민국의 우익이 스스로를 우익이라고 대놓고 떠들지 못하는 것도 매우 당연하다. 고심 끝에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우익'이라는 그럴듯한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는 곧 과거 우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인 탓에 큰 세력을 형성하기에는 무리였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마저 동력화할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우익들은 '중도'라는, 이전과는 다른 영역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하나의 선분에 대척점을 이룬 좌와 우를 전제로 중간지대를 규정하고, 탈이념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노출된 개인들을 모두 중도라고 단정해버린다. 더불어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앞세운 계층적 접근으로 계급적 단층을 희석함으로써 허위의식에 싸인 자칭 중산층마저 자신의 세력 범주에 포함시켜버린다. 이렇게 비대해진 '중도'는 이념 선분까지 외면하며 중도야말로 '제3의 길'이라 우기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중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념의 선분' 이라는 형식논리의 틀이 부정되는 순간 존재의미를 잃는다.

우익의 철학 근저에는 절대정신이나 자유경쟁의 장(場)인 시장 등 절대불변의 가치가 존재하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유기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불변의 가치를 위협하는 어떠한 사회적 갈등도 유기체를 해치는 암적 존재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반면에 좌익의 철학 근저에는 절대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존재 형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이 가치의 충돌이 사회와 역사의 발전 동력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우익과 좌익, 보수와 진보의 갈림이 명확한 이 대목에서 중도가 가당할까? 시장주의와 반(反)시장주의, 사회통합을 해치는 분열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대립 등의 인식 차이의 중간지대는 관념의 산물일 뿐이다. '좌우 날개로 나는 새' 의 비유에서조차 중도론자들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뒤엎어 가운데 몸통인 알맹이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기지를 발휘한다.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는 개념의 한계로 '중도' 에 '실용' 이 붙고 이 '실용' 의 합리화에는 그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 이 뒤따른다. 쥐를 잡는 고양이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털의 색깔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나 쥐를 잘 잡으면 그만이다' 고 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실용' 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라는 물음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실용' 에 조선시대 '실학' 사상까지 끌어 붙인다. 실학은 '이(理)' 라는 절대원리에 의거하여 고착된 질서를 합리화하는 성리학에 반해 백성들의 실체에 귀착하자는 반(反)사대부 성격의 학문이었다. 이처럼 피지배 계층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사상을 몰이념적 중도에 끌어 붙이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작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중도란 특정 이념을 특정 목적에 맞게 탈색해서 보여주기 위한 미사(美辭)일 뿐이다. 대의를 위장해 지배계층의 이해를 관철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개념이다.

현실에서는 좌우라 규정하기 힘든, 제한된 개인의 경험과 단편적 사고체계에서 비롯된 사상적 경향성에 머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이가 성장논리에 묶여 재벌체제를 용인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예 따위는 수도 없이 많다. 중도를 표방하는 우익은 이 다수를 대상으로 굳이 좌우익의 선분을 들이대면서 '중도 좌' 니 '중도 우' 니 해대다가 무책임하게 선분의 가운데로 몰아넣고 선분이 갖는 한계를 탓하며 x축에 직각으로 y축 하나를 보태보기도 한다.

이상에서처럼 형식논리에 입각한 '이념 선분' 은 우익이 만들어낸 허구이다. 이 틀을 이용해 우익이 '민족주의는 우이므로, 김구는 우익이다' 라거나, 또는 '김구는 좌도 우도 아닌 진정한 중도였다' 라고 선전한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런데 '길을 가도 오른쪽으로는 안 간다' 는 인사들이 백범을 오른쪽으로 몰아가 우익의 태생적 한계에 명분을 실어주는 일은 어떻게 이해할까. 역사적 해석을 떠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과 그분을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우익의 편으로 밀어 넣는 것은 우익이 쳐놓은 형식논리의 덫에 걸리는 길임은 분명하다.

안중근의 꿈

– 대한독립과 동양평화 –

김호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안중근의사기념관장

–1–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동안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이 유언은 안중근(1879. 9. 2 ~ 1910. 3. 26)이 순국하기 전 일본 관동도독부 뤼순형무소에서 안병찬 변호사에게 구술로서 2천만 우리민족에게 전한 내용이다.

금년은 안중근 탄생 130주년 되는 해이며, 하얼빈의거 100주년과 함께 순국 99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안중근은 32년의 짧은 인생의 삶속에서 오직 대한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하여 살신성인한 민족의 태양이었다. 민족주의 사학자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던 독립운동가 백암 박은식은 "안중근의 역사에 근거하여 그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몸 바쳐 나라를 구한 지사라 하였고 또는 한국을 위해 복수한 열렬한 협객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런 찬사에 그친다면 미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근은 세계적

인 안광을 가지고 평화의 대표자를 자임한 사람이다"라고 하여 안중근을 지사나 의사라는 실천적 행동가임과 동시에 이를 뒷받쳐 주는 사상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안중근은 국권회복을 위한 교육구국운동과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민족의 선각자이었고,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로 포교활동을 전개한 종교운동가였으며, 직접 무기를 들고 일본제국주의의 군경과 맞서 싸운 의병을 지휘한 장군이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총리 대신을 역임했고 초대 한국통감이었던 추밀원 의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역에서 포살한 대한의 영웅으로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민족정기의 표상이었다.

안중근의 이러한 실천적이고 과단성 있는 위업은 그의 독특한 사상이 뒷받침되었으며, 그것은 '동양평화론' 이라는 철학적 이론이 저변에 깔려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양평화론은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애천 · 애인 · 애국의 3애 정신을 바탕으로 한 유교사상, 개화사상, 기독교사상이 복합된 사상체계였다. 동양평화론의 궁극목적은 동양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 · 중국 · 일본 3개국이 각기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가지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여 서구제국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안으로는 3국이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책이론이었다.

–2–

동양평화론은 물론 안중근만이 주장한 이론은 아니었다. 이 용어는 일본의 위정자나 지식인들이 내걸었던 침략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즉 19세기말 이래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의 호도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한 반평화적인 단어였다. '탈아론' '대동합방론' '아시아연대주의' 등을 내걸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여 대일본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이론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개화 사상가들에 의하여 외세의 침략에 대처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동양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중립론' 이 상책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진화론에 눈뜨기 시작한 개화파인사들은 '삼국연대론' 을 내세우기도 했고 일제의 아시아연대주의에 동조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져가기도 했다.

국권이 상실되어가는 당시의 정세속에서 안중근을 비롯한 민족의 선각자들은 일제의 상투적인 동양평화 이론에 반기를 들고 진정한 의미에서 동양평화를 가져올 이론을 모색하게 되고 그 백미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양대세의 관계와 평화전략의 의견을 개진할려고 한 내용이었으나 불행하게도 미완의 작품으로 세상에 햇빛을 보았으니, 그것은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미처 탈고하지 못한 채 순국하였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구상한 것은 즉흥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 구국의 방략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듬으면서 당시의 언론, 서적을 통하여 지식의 폭을 넓혔고 민족운동가들과 교유하면서 더욱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당시의 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 한성신문, 제국신문과 같은 국내신문들과 미국에서 발행되던 공립신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던 대동공보등을 구독했으며, 저서로는 「태서신사」,「만국사」,「조선사」,「만국공법」등을 읽고 이론정립에 도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안중근은 그가 접촉했던 인사들로부터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유교적인 소양을 그의 조부인 인수공으로부터 한학의 기본적인 교양서를 교육받았으며 개화사상에 대한 부분은 부친인 태훈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천주교신부였던 빌렘(홍석구)이나 르각(곽원량)선교사 등으로부터 국제정세나 서구사상에 눈을 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배들이었던 도산 안창호, 보재 이상설, 이범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3-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6회에 걸친 재판과정을 끝내고 여순지방법원 법정에서 사형언도가 내려진 뒤부터 집필이 시작되었다. 즉 1910년 2월 14일 사형언도 후 형집행만 남은 상태에서 먼저 「안응칠 역사」라는 개인전기를 동년 3월 15일에 탈고한 뒤 순국한 3월 26일 사이인 11일 동안에 동화평화론의 서문과 전감 일부분만 집필한 미완성인 채 끝난 작품이다.

일제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의 대담에서 안중근은 동양대세와 평화정략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하니 1개월만 사형집행을 늦추어 달라고 하자 법원장이 이를 허락하자 집필을 시작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형집행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끝을 마치지 못 했던 것이다.

원래 동양평화론은 1. 서문, 2. 전감, 3. 현상, 4. 복선, 5. 문답으로 구성할려고 하였던 것 같다. 서문은 19세기 제국주의시대에 동양3국의 단합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서구제국주의열강의 침략에 대항하고 특히 방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감은 앞사람의 일을 거울 삼아 스스로 경계하자는 뜻이었고, 현상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를 기술코자 했으며, 복선은 뒤의 일을 대비하여 미리 꾸며놓는 일 즉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준비로서 그에 관련된 일을 앞에서 미리 비쳐 보이는 일을, 문답은 물음과 대답,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맺고자 했던 것이다.

"성패는 만고에 항상 정해진 이치이다. 오늘날 세계는 동서로 갈라지고 인종이 각각 다르며 서로 경쟁하기를 밥 먹듯 하며 이기연구에 농상보다 더욱 열중하여 새로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 등을 발명하고 있으니 이것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상해하는 기계들이다.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에 몰아넣어 수없는 귀중한 생령들이 희생물처럼 버려져 피가 내가 되어 흐르고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어 그칠 날이 없다"로

> 성패는 만고에 항상 정해진 이치이다. 오늘날 세계는 동서로 갈라지고 인종이 각각 다르며
> 서로 경쟁하기를 밥 먹듯 하며 이기연구에 농상보다 더욱 열중하여 새로 전기포, 비행선,
> 침수정 등을 발명하고 있으니 이것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상해하는 기계들이다.
>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에 몰아넣어 수없는 귀중한 생령들이
> 희생물처럼 버려져 피가 내가 되어 흐르고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어 그칠 날이 없다.

시작되는 서문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 속에서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약소국을 제물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꿰뚫어 보았다. 나아가 인간존중과 인류의 공동번영이란 대전제는 무시당한 채 전쟁이라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패권을 장악하고 이를 위해 다투어 전쟁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대상황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성과 폭력성을 규탄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국가가 제정 러시아라고 보았다.

이러한 제정러시아의 남진정책을 물리칠 수 있는 세력은 일본이었고 그래서 한국과 청국이 일본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4-

"예로부터 동서남북 어느 주를 막론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대세의 반복이요 알 수 없는 것이 인심의 변천"이라고 하면서 전감에서는 역사의 진전은 인간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아시아 대륙에서 치루어 졌던 청 · 일 전쟁(1894년), 러 · 일 전쟁(1904~1905)을 통한 동양사회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청 · 일 전쟁에서 그 전쟁의 원인과 일본이 승리한 이유와 청이 패배한 이유를 민족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동학농민운동이 외세를 끌어들여 한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 · 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유는 명치유신 이후 거국적인 상하 인민들이 힘을 결집하여 대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청국이 패배한 이유는 중화사상에 바탕을 둔 자만과 권위주의, 국론의 분열,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불신, 정치의

문란 등이 참패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둘째 제정러시아의 극동정책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과실을 논하고 있다. 3국 간섭에 의하여 제정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면서 청국이 요동반도를 환부 받게 만들어 주면서 요동반도의 뤼순조차를 성공하여 부동항을 얻기 위한 남하정책의 실상을 비판하고 그 모든 것이 일본이 청국과의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러 · 일전쟁의 원인, 그 성격, 서구열강의 대책, 한국 · 청국의 대응 등을 예리한 형안으로 분석하여 그 득실을 비판하고 있다. 안중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독립보장과 동양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제정러시아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한국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전쟁을 도발한 것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 당시 일본은 요행이 연승을 거두었으나 아직 함경도, 요동반도 여순, 만주 봉천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전쟁상태였는 바 이때 한국의 관민이 일치단결하여 일본에 대항하였다면 1895년 을미년 일본인이 한국의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한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국도 상하가 협동하여 전날 의화단 때와 같이 행동했다면 1894년 갑오년의 숙원을 갚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일본을 상대로 한국과 청국이 서로 다툰다면 이 틈새를 이용하여 영국 · 프랑스 · 미국 · 독일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그리스 등이 산동반도와 발해만으로 군대를 집결시키면서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어쩔 수 없이 일본 · 청국이 대항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동양은 자멸할 수 밖에 없다고 설파하였다.

넷째 러 · 일 전쟁의 강화조약이 미국의 중재 하에 그것도 미국영토인 포오츠머스에서 체결하게 된 이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인종간의 차별로 보면서 조약문에 한국 · 러시아와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데 한국문제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다섯째 안중근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강한 경종을 주고 있다. 같은 황인종이면서 이웃나라인 한국을 침략하여 지배하려한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정책을 전면 공격하며 언젠가는 그 값을 치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5-

이상 옥중에서 안중근이 집필한 '동양평화론' 중 전감의 내용인 바 이 내용도 전부 서술되어 진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서문, 전감의 일부분을 가지고 동양평화론 전체를 밝힐 수 는 없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심문조서 등과 특히 안 의사가 1910년 2월 17일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 면담한 내용을 담은 '청취서'에 동양평화론에 대한 안중근의 이상이 담겨있다.

우선 동양의 중심지이며 요동반도의 항구도시인 뤼순을 영세중립지로 만들어 각국 대표에 의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뤼순 영세중립지 설치 시행 방안〉

1. **동양평화회의 조직**
   3국인 민중에서 회원 모집, 재정은 1인당 회비 1원 모금액으로 운영
2. **공동은행 설립, 공동화폐 발행**
   3국이 공동 출자하여 은행 설립, 각국 공용화폐 발행
3. **조직기구의 확대**
   3국 중요 지역에 평화회의 지부와 은행지점 설치
4. **영세중립지 뤼순 보호**
   일본군함 5~6척을 항구에 정박시켜 보호 담당
5. **평화군 양성**
   각국 청년모집, 최소한 2개국어 교육
6. **공동경제발전**
   일본의 지도 아래 한국 · 청국의 상공업 발전 도모
7. **국제적 승인**
   한국 · 중국 · 일본 지도자가 로마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음
8. **일본의 침략만행 반성**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규탄과 대응

서세동점이라는 서구제국주의 물결 속에 그들의 침략과 수탈에 대응하여 동양3국이 공동 대처 한다는 이론인 동양평화론은 한국의 개화론자들이 주장한 중립론이나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아시아 연대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는 평화의 논리를 폈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그의 치열한 짧은 삶의 역정 속에서 우러나온 결과였다.

한 시대 한 지역을 넘어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지향하고, 우선 동양 3국인 한국 · 중국 · 일본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모범을 보이고자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현재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선행이론이었고 그 본보기라 할 수 있으며, 최근 한 · 중 · 일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구상중인 동북아경제협의기구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독립을 향한 굴하지 않는 의지 '의열단'

1920년대초 일제 · 매국노에 대한 암살 · 파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이후에는 국외에서 민족협동전선과 유일당운동(唯一黨運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독자적인 민중폭력혁명을 이념적 기반으로 활동했다.

1919년 3 · 1운동을 계기로 일부 독립군 양성론자들은 군대양성노선을 포기하고 소수의 결사를 조직하여 암살 · 파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인의 애국심을 자극해 민중폭동을 유발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같은 해 11월 9일 만주 지린 성[吉林省] 파호문 밖 중국인 농부 집에서 신흥무관학교생인 김원봉(金元鳳) · 이종암(李鍾巖) · 신철휴(申喆休) · 서상락(徐相洛) · 한봉인(韓鳳仁) · 이성우(李成宇) · 강세우(姜世宇) · 한봉근(韓鳳根), 밀양 3 · 1운동의 참가자인 윤세주(尹世胄) · 김상윤(金相潤), 상하이[上海] 출신의 곽경(郭敬), 배동선(裵東宣) · 권준(權俊) 등 13명이 모여 암살 · 파괴 노선의 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했다. 단체 이름은 '천하의 정의(正義)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 하기 위해 의열단으로 하고, '조선독립과 세계평등을 위해 신명을 바친다' 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 10조를 행동지침으로 결정했다. 또한 암살대상을 조선총독부고관 · 군부수뇌 · 대만총독 · 매국노 · 친일파거두 · 밀정 및 반민족적 토호열신 등 '의열단7가살' (義烈團七可殺)로, 파괴대

상을 조선총독부 · 동양척식회사 · 매일신보사 · 경찰서 · 중요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단장에는 김원봉이 선출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직 · 이념 지도는 전(前)대한광복회원 황상규(黃尙奎)가 담당했다.

창단

1920년 본부를 베이징[北京]으로 옮겨 상해임시정부의 외교노선에 반대하던 한국인들의 재정적 · 인적 도움을 받았다. 1920년 6월 제1차 암살 · 파괴 행동에 필요한 폭탄과 권총을 중국에서 밀양으로 운반했으나, 도중에 황상규 · 한봉근 · 윤세주 등이 일제 경찰 김태석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1920년 9월 박재혁(朴載赫)의 '부산경찰서투탄의거', 같은 해 11월 최수봉(崔壽鳳)의 '밀양경찰서투탄의거', 1921년 9월 김익상(金益相)의 '조선총독부투탄의거', 1922년 3월 오성륜(吳成崙) · 김익상 · 이종암의 '상해황포탄저격의거' 등의 격렬한 암살 · 파괴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이승만(李承晩)의 미국위임통치론에 반대하여 신채호(申采浩) 등이 임정 불신임, 국민대표회의소집운동을 제창하자 이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1922년 국민대표회의 세력이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자, 이들을 기관만능주의로 비판하고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2차 암살 · 파괴 운동을 계획하여 같은 해 6월 이종암 · 최용덕(崔用德)을 국내에 파견해 조선무산자동지회장 김한(金翰)과 접촉, 행동준비를 했다. 그러나 1923년 1월 김상옥(金相玉)이 독자적으로 '종로경찰서투탄의거'를 감행한 뒤 일경의 대대적 검속으로 김한이 체포되었다. 이후 국내에서의 암살 · 파괴 운동 준비는 김시현(金始顯)과 현직 경부 황옥(黃鈺)이 담당했다. 이들은 영국인 쇼우를 끌어들여 폭탄과 선전문건을 국내로 반입했으나, 1923년 3월 밀정의 밀고로 관련자 전원이 체포되었다. 이후 상하이로 본부를 옮기고 개조파와 연합하여 임시정부의 개편과 사회주의계열의 적기단(赤旗團)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한편, 국내에서 모금활동을 했으나 일제의 집요한 추적과 부호들의 거부로 실패했다. 이에 대규모 테러 계획은 포기하고 소규모의 암살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1924년 1월 김지섭(金祉燮)의 '도쿄니주바시[東京二重橋] 폭탄투척의거', 1925년 10월 이종암 등의 '경북의열단사건', 1926년 12월 나석주(羅錫疇)의 '동척 · 식산은행투탄의거' 등을 전개했으나, 개인적 테러 활동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방향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강령과 노선전환

창단 초기에는 강령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구축왜노'(驅逐倭奴) · '광복조국' · '타파계

▲ 조선의용대 대장 시절 약산김원봉

급' · '평균지권'(平均地權)의 4개항이 지향이었다. 그리고 김원봉이 1923년 1월 베이징에서 신채호에게 부탁해 작성된 '조선의열단' 명의의 〈조선혁명선언 朝鮮革命宣言〉은 '강도 일본'에 대한 '직접혁명'이 필연적이며, 외교론 · 준비론 등 실력양성론자들을 강도 일본과 타협하는 적으로 비판하고, 파괴의 대상은 이족통치(異族統治), 특권계급, 경제약탈제도, 사회적 불균형, 노예적 문화사상 등이라 하여 민중폭력혁명노선을 단의 이념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1924년에 들어 사회주의 · 무정부주의가 유입되면서 윤자영 등은 상해청년동맹을, 유자명 등은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각각 결성하여 의열단을 탈퇴했다. 특히 청년동맹은 의열단을 '공포론자'로 비판하면서 독립운동과 사회 · 정치 운동의 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열단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성과에 비해 희생이 컸고, 충격효과에도 불구하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음을 반성해, 테러에 의해 촉발된 민중봉기로 단숨에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환상이며, 국내의 대중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1925년 소수 투사들의 자유결합에 의한 폐쇄적 비밀결사의 틀을 벗고, 대중의 장기적 조직화와 그에 기반한 무장투쟁노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청년동맹은 의열단을 '공포론자'로 비판하면서 독립운동과
사회 · 정치 운동의 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열단 내부에서도 그동안의 성과에 비해 희생이 컸고,
충격효과에도 불구하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음을 반성해,
테러에 의해 촉발된 민중봉기로 단숨에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환상이며,
국내의 대중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후기활동

1924년 김원봉은 광저우[廣州]에서 중국국민당 인사들을 만나 지원을 약속받았고, 다음 해 본부를 광저우로 옮겼다. 1926년 1월 김원봉 이하 단원 12명은 황포군관학교 4기로 입학하여 민족해방운동에서 대중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군사이론 및 실전 등을 학습하고 같은 해 10월에 졸업했다. 그동안 김원봉 · 김성숙 · 장지락 등은 황포군관학교 · 중산대학(中山大學) 졸업생들을 의열단에 포섭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단원은 100여 명이 넘었다. 또 광저우에 모여든 청년층 활동가들을 정파 · 출신에 관계없이 통괄, 대표하는 유오한국혁명동지회(留奧韓國革命同志會)를 조직했고, 무창[武昌]에도 외곽단체로서 무창한국청년회를 조직했다. 이런 기반 위에서 1926년 겨울 총회를 열어 혁명정당을 세워 운동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의열단을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으로 확대 · 개편했다. 이어 민족주의적 강령과 정책을 채택하고 김원봉을 당수로, 김성숙 · 오성륜 등을 중앙위원으로 선출했다. 민족혁명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광저우에 두고 활동했으나, 1927년 국공분열로 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유명무실해져 의열단으로 환원되었다. 1928년 10월 상하이에서 제3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일본제국주의타도' · '조선독립만세' · '전민족적 혁명적 통일전선' · '자치운동타도'의 4대 슬로건과 20대 강령을 발표하고, 지금까지의 유일당운동 대신 국내의 광범한 노농대중에 기반한 조직적 투쟁을 주로 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내부 분열로 좌파단원들은 중국공산당을 따라 광동[廣東] 봉기에 참가했고, 김원봉 이하 소수단원들은 베이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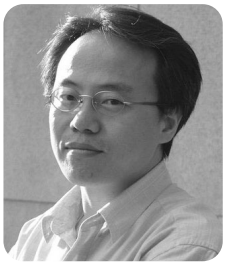
1932년 10월 조선독립당 · 한국광복동지회 · 조선혁명당 · 한국혁명당 등과 함께
중국 내 한인 독립운동단체의 단결을 위한 매개체로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했으며, 1934년 3월에 난징에서 열린
동맹 제2차 대표회의에서
강력한 결속력과 통제력을 가지는 유일당 건설운동이 제기되었다.

본부를 옮겼다. 베이징에서 제3차 조선공산당 간부였던 안광천 등과 연대, 1929년 12월 조선공산당 재건동맹을 결성하여 연합전선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잡지 〈레닌주의〉 발행 및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개설하여 간부를 양성한 뒤, 졸업생들을 서울 · 평양 · 강릉 · 원산 등에 파견하여 비밀지부를 결성하게 했다. 그러나 1933년 종연방직 파업을 계기로 전원 체포되어 동맹의 국내 기반은 붕괴되었다. 한편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제5차 대표회의를 열고 중국국민당과 항일제휴를 결정한 뒤, 상하이에서 김원봉이 삼민주의역행사(三民主義力行社) 서기 텅제[滕傑]를 만나 재정을 지원받았으며, 1932년 10월 국민당의 도움으로 난징[南京]에 조선정치군사간부혁명학교를 개교하여 민족혁명의 간부 양성에 주력했다. 1933년 6월 제7차 대표회의에서 노농혁명과 무장투쟁 등의 내용이 첨가된 개정강령을 채택하고 간부학교 졸업생 이육사 · 노석성 등을 국내에 파견했으나, 모두 일제에 체포되었다.

1932년 10월 조선독립당 · 한국광복동지회 · 조선혁명당 · 한국혁명당 등과 함께 중국 내 한인 독립운동단체의 단결을 위한 매개체로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했으며, 1934년 3월에 난징에서 열린 동맹 제2차 대표회의에서 강력한 결속력과 통제력을 가지는 유일당 건설운동이 제기되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1935년 7월 5일 조선혁명당 · 의열단 · 신한독립당 · 한국독립당 · 재미대한독립당 · 뉴욕대한민단 · 미주국민회 · 하와이국민회 · 국민동지회 등 민족주의 단체가 모여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이 출범됨으로써 참가 단체들의 해소가 진행되고 의열단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임시정부가 꿈꾼 복지·여성·노동 1)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해서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정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역사를 정통으로 승인하고 계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이며, 1945년 8월 15일은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이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정식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자면, 2009년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건국된 지 90주년이 되는 해인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단순히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 걸맞은 사회정책을 제시했다. 당시 '선진국'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러한 '선진국'의 흐름에 걸맞은 사회정책을 펼쳐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시한 사회정책은 여전히 커다란 현실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

1) 이 글은 2009년 4월에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9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필자의 논문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생각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민국 임시정부' 를 단지 '과거의 유산' 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 이라는 관점에서 계승해야 한다.

친일-독재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역사를 유린하고 또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 추구했던 '선진국' 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친일-독재 세력은 이른바 '뉴라이트' 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 는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 라고 주장하며, '정신대' 피해자들을 '자발적 창녀' 라고 모욕한다. 이 때문에 '뉴라이트' 에 대해 '신친일파' 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신친일파' 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지켜야 할 중대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로 대표되는 역사를 올바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 추진했던 올바른 국가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미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사회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소유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비인간적인 불평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당시 '선진국'의 일반적 추세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것은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복지국가에 가까웠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41년 11월 28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다. 이 '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임시헌장'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렇듯 만민평등의 이상을 적극 추구했다. 그것은 '이족전제'와 '군주정치'를 동시에 타파하고 '민주제도'를 수립하여 이룩될 것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한 '민주제도'는 '이족전제'와 '군주정치'의 타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지만, 이와 함께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라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후자와 관련해서 사이비 보수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식민과 독재에 뿌리를 둔 세력답게 사이비 보수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색깔론' 공세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소유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비인간적인 불평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당시 '선진국'의 일반적 추세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것은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복지국가에 가까웠다. 복지국가는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국가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건국을 다룬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3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특히 사회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3장의 4와 6에서 살펴볼 수 있다. 3장의 4는 6개 항, 6은 8개 항으로 되어 있다. 먼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4의 6개 항 중에서 사회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

다시 말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 개발독재 시대처럼 휴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건국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휴식권'에 대해 우리는 더욱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학권은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권리가 아닐 수 없다.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좌열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별정 시행함.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다. 신체자유와 거주, 언론, 저작,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시위행동, 통신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먼저 가 항에서는 일반적인 참정권보다도 여러 사회권이 강조되고 있다. 피구제권과 피보험권은 사회복지의 기초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노동권과 휴식권, 그리고 수학권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권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강조되는 것이지만 이와 함께 휴식권도 제시되고 있는 것은 노동만큼이나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휴식은 노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한국은 여전히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노동국가'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 개발독재 시대처럼 휴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건국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휴식권'에 대해 우리는 더욱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학권은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권리가 아닐 수 없다.

나 항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참정권은 미국 1920년, 영국 1928년, 프랑스 1946년 등으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서 남녀평등을 천명한 것은 상당히 이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녀평등의 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참정권을 넘어서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남녀평등을 천명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남녀평등은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일제의 유산인 호주제는 어렵게 폐지되었으나 가부장제는 여전히 막강하며, 여성은 직장에서 남성보다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점에서도 '건국강력'은 커다란 미래의 자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기 위해서는 '건국강령'에서 제시된 남녀평등을 적극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제정책을 규정한 6에서 사회정책과 연관된 부분을 보도록 하자. 사실 '건국강령'의 경제정책은 사회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특히 바 항과 사 항이 그렇다.

> 6.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 보위함에 연환(連環)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열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행함.
>
> …
>
> 바. 노공, 유공, 여공의 야간노동과 연령 · 지대(地帶) ·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
>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免費醫療)를 보급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
> …

바 항은 과도한 노동과 불합리한 노동에 대한 금지로서 여전히 큰 적실성을 갖는다. 노동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노동의 보호는 모든 구성원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의 기초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과 800만 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사 항은 의료복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선진적' 정책이었다. 현재 한국은 의료복지의 면에서 상당히 선진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이비 보수세력은 의료복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서 의료복지를 더욱 신장하는 것은 이미 중대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3.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을 통해 제시된 여러 사회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꿨던 사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민주공화제'가 자리잡고 있다.

첫째, 자유주의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소유권을 포함한 자유권에 기반한 사회를 추구했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비해 소유권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자 했다. 소유권의 무제한적 허용은 결국 불평등의 심화를 통한 사회의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에 대한 규제는 사실 대단히

▲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이다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복지주의이다. 북구는 1920년대부터, 미국은 1930년대의 뉴딜정책을 통해, 영국은 2차대전 직후에 복지국가로 전환했다. 그 핵심은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각종 사회정책의 강화, 노동권의 강화 등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 추진했던 사회정책들은 모두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명시적으로 복지국가를 제시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는 복지국가를 꿈꿨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남녀평등이다. 이것은 복지주의의 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구별해서 좀더 근원적인 사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은 혹독한 가부장제 사회였으며, 일제는 더욱 더 그랬다. 그리고 당시는 서구에서조차 남녀평등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 남녀평등을 크게 강조하고 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우리가 꿈꿀 나라.**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된 지 9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우리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은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8박 9일간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찾는 여정을 전개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3.1기미독립선언이 선언한 '독립국' 이라는 민중의 소망을 실현하는 원대한 꿈의 실천이었습니다. 그해 4월 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한 이후 무려 27년이라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망명정부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전개됩니다.

임시정부는 1932년까지의 상해시기와, 윤봉길의사의 의거로 강화된 일제의 추격을 피해 상해를 탈출한 이후부터 1940년까지의 이동시기를 거쳐, 중경에 정착한 후 해방을 맞게 됩니다. 특히 1932년부터 40년까지 8년간 임시정부가 이동한 거리는 무려 5,000km를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던 암울한 시기를 거치면서도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을 통해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대오를 만들어내고 광복군을 조직해 무력투쟁을 준비하는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은 임시정부가 걸어갔던 그 고난의 행로를 찾아 갔습니다. 상해, 남

경, 가흥, 항주, 장사, 계림, 유주, 기강과 중경 등 여러 곳의 선열들의 투쟁의 현장을 우리의 발로 찾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대학생들의 태도에서 확인한 희망입니다. 이때까지의 답사가 그랬듯이 이번 답사 역시 대학생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유적지를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유적지에서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선열의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동행한 김정륙 선생 모친의 묘소를 찾기 위해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천 기의 묘비명를 확인하는 따뜻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신들을 내적으로 단결시키고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5시간을 가는 밤 열차는 오히려 이번 답사의 의미를 토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단결의 밤에 보여준 연극에도 잘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번 답사를 한 마디로 평하라고 하면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성찰한 답사였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의 이러한 성찰은 그들 개인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보기에 허술했기에 오히려 더 마음으로 보려고 애썼던 답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로하고만 있기에는 세월의 흐름은 빠르고 아쉬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콘크리트와 쓰레기 더미에 뒤덮이고 엉뚱한 곳에 무성의하게 박아놓은 표지판은 당황을 넘어 우리 일행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륙 선생의 예에서 보듯이 중국의 개발속도와 맞물려 선현들의 유적지가 훼손되는 현장을 답사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명 27년이라는 임시정부 어른들의 목숨 건 항쟁의 현장은 중국의 곳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답사단에 참가한 53명의 대학생과 후손, 기자 및 의료진 등 모두 73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학민 단장, 조영빈 학생단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한 실무진, 좋은 강의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숱한 명망가들이 변절의 길을 걷던 암울한 시대에, 초라한 행색과 끝없는 유랑으로 지키려했던 "그 분들이 꿈꾼 나라"를 찾는 일은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찾아서

제 5기 「독립정신」답사단이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대학생 등 73명이 임시정부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상해에서 중경까지 8박 9일 동안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순간들을 화보로 엮었다.

①

②

③

④

①답사단장님이신 김학민 선생님의 한말씀 ②하나라도 놓칠까봐 집중 또 집중 ③대한민국 임시정부유적지 ④기념관의 전시장으로 들어가면서 ⑤루쉰공원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앞에서 발대식 ⑥김광재박사의 임시정부에 대한 강의 ⑦발대식후 단체 사진 찰칵! ⑧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입구

⑤

⑥

⑦

⑧

답사단화보

①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②터만 남은 호가화원 ③남경대학교 앞에서 ④숨막히는 열기의 남경대학살기념관 ⑤나가!나가!앞으로나가! 대길이의 독립군가 열창 ⑥희생자들을 추모하며.. ⑦호가화원앞에서 김정륙 부회장님의 설명 ⑧일본군 헌병사령부였던 곳에서 ⑨호가화원 가는 길

①임정요인 피난처 앞에서 2팀 한장 ②3조의 단체사진 ③임정요인피난처로 가는길 ④가슴아픈 사랑이야기 '인상서호' ⑤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인상서호' ⑥백범 김구 선생님 피난처앞에서 한장 ⑦김구선생님이 배로 피난가시던 곳 ⑧김자동 회장님의 설명

답사단화보

①열심히 설명을 듣는 우리 답사단원들 ② '저 답사소감문 이렇게 썼어요' ③고려사에 장군납시오! ④서호에서 힘차게 점프! ⑤항주의 임시정부 기념관 ⑥언제나 금슬 좋으신 회장님 부부 ⑦항주 기념관앞에서 한장 ⑧항주 기념관에서 영상물 관람 중 ⑨일단 찍자!사진찍기에 열중 하고 있는 박록삼기자와 답사단원들

①장사의 호남성 박물관 ②계림행 열차에서 ③1팀장과 2팀장의 갈등 ④남목청 가는 길 ⑤신명식 부단장님의 열정적인 강의 ⑥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소장님의 뜻깊은 강의 ⑦남목청에서 한장 ⑧놓치면 안된다! ⑨김구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던 상아의원앞에서

①유후공원에서 ②유주의 임시정부 기념관 ③이곳에서 활동했던 선열들의 얼을 이어받아! ④기수 원희와 덕곤이 ⑤4년만에 다시 찾은 기념관 ⑥칠성공원에서 신명식 부단장님의 한마디 ⑦아름다운 노적암 동굴 ⑧기강으로 가는 열차안에서 조별로 한장씩

①이장된 한인묘지에서 김정륙 부회장님의 노제 ②자세히 설명을 하는 김자동 회장 ③열심히 설명을 듣는 답사단원들 ④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름답다! ⑤표지석만 있는 오사야항의 임시정부 표지 ⑥오늘은 내가 카메라 기자~ ⑦이름모를 묘비들... ⑧지금은 식당이 된 광복군 총사령부 ⑨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⑩관리가 안되는 사적지, 그나마도 위치가 틀리다!

답사단화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답사기간 내내 고생한 조영빈 학생단장 ②임정 골든벨의 우승자! 조경수 답사단원 ③임재경 선생님의 귀중한 말씀 ④연극 중 열연중인 박관우 답사단원 ⑤답사단의 밤, 서강의 매직쇼와 그 도우미들 ⑥산다라 충의 데뷔무대! ⑦연극 '임정의 후예들이 꿈꾼 나라' ⑧당신들이 꿈을 잊지 않겠습니다 ⑨당신들의 연극 출연자들의 힘찬 독립군가 ⑩해단식 후 한장

제 5기 「독립정신」답사단 일지

◈ **답사기간 :** 2009년 7월 11일(토)~2009년 7월 19일(일)

◈ **답사지역 :** 상해 – 남경 – 가흥 – 항주 – 장사 – 계림 – 유주 – 기강 – 중경 – 성도

◈ **교통수단 :** 버스, 철도, 항공
인천–상해/국제선 항공
항주–장사/D–109열차
장사–계림/1561열차
유주–기강/K143열차
성도–인천/국제선 항공

◈ **정　　리 :** 조정의(제 5기 답사단원,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 2학년)

◈ 1일차 7월 11일 토요일 맑음
- 상해

8:30 인천공항에 집합하여 답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분배하고 탑승 준비를 했다.

11:36 10시 50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약 2시간을 날아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했다. 신종플루로 인해 체온 검사 후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15:00 팀별로 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신명식 부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동했고 첫 답사지인 상해 임시정부청사에 도착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남의 나라 한 귀퉁이에 망명정부를 세웠고 오랜 세월 투쟁을 하였다. 구국일념만으로 살아온 선열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금 독립정신을 마음에 새겼다.

16:00 윤봉길의사 의거 현장인 루쉰공원으로 이동하였다. 조영빈 학생단장의 사회에 따라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김자동 회장님, 김학민 단장님의 말씀과 황지현 단원의 출정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름답다' 라는 독립정신의 새로운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18:20 저녁식사를 마친 단원들은 상해 신장강 호텔에 도착했다.

20:20 상해 임시정부청사에서 답사단에 합류하신 국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광재 박사님이 '임정사의 개요 및 좌우 합작운동' 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다. 이어서 1조부터 8조까지 단원들과 각 조별 멘토 선생님들의 소개로 답사 첫날을 마무리했다.

◈ 2일차 7월 12일 일요일 맑음
- 남경

8:00 버스를 타고 남경으로 이동했다. 김학민 단장님과 신명식 부단장님의 강의에 이어 첫 번째 조별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조와 6조가 '상해임시정부의 활동/남경대학살' 에 대해서 발표했다. 답사 전 조별로 야심차게 준비한 주제발표는 답사 내내 단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12:10 약 4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 동안 각 팀은 버스 안에서 퀴즈를 풀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조별로 목청 높여 독립군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빛의 속도로 절대음감 대결을 하면서 지루한 이동시간을 재미나게 보낼 수 있었다.

13:00 점심식사 후 남경대학살 기념관에 도착했다. 일본군 헌병사령부 터를 방문하고 민족혁명당계열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호가화원으로 이동했다. 신명식 부단장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16:15 육군중앙군관학교(장개석 관저)의 터를 방문하고 남경대학교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19:20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했다.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깐의 휴식으로 달랜 후 한국 종로 피아노거리 같은 남경의 '후난루' 관광을 나섰다. 오묘한 맛을 가진 다양한 꼬치들, 한국과 똑같은 맛에 놀란 KFC, 맥도날드. 뜨거운 밤을 모두 함께!

◈ 3일차 7월 13일 월요일 맑음
- 가흥 / 항주

8:30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마친 단원들은 가흥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김학민 단장님, 신명식 부단장님의 강의에 이어 3조와 5조는 '임시정부의 수난사'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조별발표를 했다.

12:40 오랜 시간 버스로 이동해 피곤한 몸을 간단한 체조로 풀고 가흥에 도착하여 맛있게 점심식사를 했다.

13:30 1팀과 2팀은 교차로 임정요인 숙소와 김구 피난처를 답사하였다. 임정요인 숙소에서 김자동회장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당시 생생한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가슴으로 느껴라! 무슨 생각으로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갔고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버스 이동 중 신명식 부단장님께서 하신 말씀

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14:50 약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항주로 이동했다.

19:45 호텔에서 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마친 단원들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항주 서호에 도착했다. 중국 영화계의 거장인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인상서호'를 관람하였다.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춤과 사랑의 노래. 한여름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었다.

◈ 4일차 7월 14일 화요일 맑음
- 항주 / 장사

9:00 항주임시정부청사에 도착했다. 임시정부에 대한 짧은 비디오를 감상하고 청사 내부에 전시된 자료를 둘러보았다.

10:00 중국의 명장 '악비'를 모신 사당인 악비묘에 도착했다. 악비가 썼다고 전해지는 '환아하산'이라는 글귀에는 잃어버린 우리 강산을 되찾아오겠다는 악비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고 한다. 한 편, 1934년 6월 29일 한국독립당 이사이자 임시국무의원 비서장인 김철이 항주에서 병사하자 임시정부는 서호가 악비묘 뒤의 공동묘지에 시신을 안치하였다.

11:35 어제 밤 인상서호를 관람했던 서호에 다시 왔다. 환한 낮에 보는 서호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아름다움을 풍겼다. 서호에서 유유히 배를 타는 센스!

13:30 점심식사 후 서호 부근의 고려사를 방문했다. 현재 고려사는 한국 조계종과 중국 항주시 절강성 종교국이 협의하여 복원 중에 있다.

16:50 항주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단원들은 항주역에 도착해 장사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짧은 승차시간으로 긴장감을 가득안고 열차에 올라탔다.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했다.

18:00 8박 9일간의 답사 중 절반을 마친 지금까지의 중간 소감문과 '과거사 정리는 왜 중요한가',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에 대한 단원들의 생각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

00:20 늦은 시각 장사역에 도착한 후 호텔로 이동하여 짐을 풀었다.

◈ 5일차 7월 15일 수요일 맑음
- 장사

9:30 곽태원 이사님께서 '임시정부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짧고 명쾌한 강의였다.

10:30 10분간의 짧은 휴식 후 신명식 부단장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김원봉과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본 대륙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주제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이후 연도별 임정의 자취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13:00 1938년 5월 3당합당 논의 중 김구 선생이 피습을 당하고 치료했던 상아의원에 도착했다.

13:30 임시정부기념관인 남목청을 답사했다. 남목

청은 지청천이 중심을 이룬 조선혁명당 본부가 있던 곳이었다고 한다.

14:00 호남성(장사)박물관 도착. 주나라의 청동기, 초나라의 문물, 역대 도자기, 그림, 근대의 문화재, 미이라등이 전시되어있었다.

19:10 장사역 도착.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잠시 대기 후 단원들은 계림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 6일차 7월 16일 목요일 맑음
- 계림 / 유주

5:30 계림 도착. 아침식사 중 신명식 부단장님의 오늘의 답사지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6:50 2조, 7조의 세 번째 주제발표 '조선의용대'에 관해 발표를 했다. 조선의용대 총 본부가 있었던 칠성공원에 도착했다.

8:30 60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적암 동굴을 관람했다.

9:30 유주로 이동. 다시 돌아온 조별 퀴즈대항시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퀴즈와 조금 더 스피드해진 절대음감 대결!

13:15 유주에서 결성된 광복진선청년공작대가 활동지였던 유후공원 도착.

13:50 임시정부관련유적을 전시해놓은 낙군사에 도착하였다. 4년 전 1기 답사단원들이 이 곳에서 큰 광목천에 쓴 글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아쉽게 선배 단원들의 글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16:40 유주역에 도착하여 기강행 열차에 탑승했다.

18:00 쌀국수, 비빔밥, 라면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한 단원들은 조별로 조가, 조이름, 조 구호를 준비하고 과거사 정리의 중요성과,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극팀은 장강일기의 한 부분을 토대로 대본을 짜고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계속했다.

◈ 7일차 7월 17일 맑음
- 기강 / 중경

7:50 기강 도착. 아침식사 후 임시정부청사구지를 찾았다. 이곳에서 병사하신 석오 이동녕선생을 기리며 짧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10:00 중경으로 이동하는 동안 4조, 8조의 마지막 주제 '해방과 망명정부의 귀환' 발표가 있었다.

11:00 임시정부 요인들과 조선의용대 대원들의 묘지가 있었던 화상산 한인묘지에 도착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때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 분은 차리석, 이동녕, 곽낙원, 김인 총 네 분뿐이며, 나머지 분들의 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김정륙 선생님 모친의 묘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간소한 제를 지냈다. 어머니를 찾는 김정륙 선생님의 슬픈 외침에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함께 울었다.

12:15 중경으로 본부를 옮긴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가 주로 활동했던 손가화원을 찾았

다. 손가화원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셨던 김정륙 선생님의 그 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4:30 지금은 미원식당이 된 광복군총사령부 옛 터를 버스안에서 스쳐지나갔다.

14:45 답사의 마지막 유적지인 중경임시정부청사(연화지)에 도착했다. 중국 곳곳에 있는 임시정부청사 중 가장 복원이 잘 된 곳이라고 한다. 해방을 맞이해 조국으로 돌아가기 전 임정요인들이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우리들도 사진을 찍고 힘차게 독립군가를 불렀다. 모든 답사 일정을 잘 마친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모자를 벗어 하늘 높이 던져올렸다.

16:00 중경임시정부청사에서 조금 떨어진 오사야항을 찾았다.

19:30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랠 답사단의 밤 시간이 돌아왔다. 조별 발표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한 연극 '임시정부 후예들이 꿈꾼 나라'로 답사단의 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골든벨까지 마치고 이동 중에 버스안에서 했던 조별 퀴즈대항과 오늘의 조별발표 점수를 합산해 우수조에게 상금을 전달하는 시상식이 이어졌다. 광목천에 각자의 느낀점을 적고 마지막으로 독립군가와 구호를 크게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웃음과 아쉬움의 눈물이 함께했던 잊지못할 밤이었다.

◈ 8일차 7월 18일 토요일 맑음
- 중경 / 성도

9:30 임재경 선생님의 강의 후 해단식을 거행하였다. 단원들에게 수료증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13:00 성도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답사 소감을 다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17:00 성도 팬더공원을 찾았다.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쯤에 도착해 많은 팬더를 구경하지 못했다.

20:15 비행기 탑승시간까지 여유시간이 생겨 단원들은 '변검' 공연을 관람했다.

◈ 9일차 7월 19일 일요일 맑음
- 성도 / 인천

00:20 인천공항 행 비행기에 탑승. 한국시각으로 새벽 4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5:00 김자동회장님의 짤막한 말씀이 있으신 후 모두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름답다!' 구호를 외쳤다.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 흘린 땀들. 돌아보면 무척이나 짧았던 8박 9일간의 여정을 조원들 간에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 하였다. 독립정신답사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설립에 즈음하여

–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 공존의 새시대를 향해

내년 2010년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국치 100주년이 된다. 이 100주년을 맞아 뜻있는 단체들이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제국주의의 산물인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동북아 평화 공존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런 기회에 국치(國恥)를 전후한 시기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 사업의 의미를 새겨보자는 것이 저에게 강연을 요청한 의도라고 생각하고 관련하여 간단히 언급하겠다.

◈ **조약들의 불법성** : 일제가 한국에 대해 맺은 조약, 특히 20세기에 맺은 조약은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의정서'는 국외중립을 선언한 한국을 협박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나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조약이었다. 노일전쟁에서 전황이 유리해지면서 8월 22일자로 강제체결한 '한일협약'은 일제가 한국에 대해 고문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조약'의 전단계의 것으로 한국 황제와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위협하에 일본의 야욕대로 진행시켰다. 위의 두 조약은 "서울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측의 일방적 입장이 시종 작용한" 불법적인 것으로 쌍방교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체결당시에는 제3국 언어(영어)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국제 조약법상으로 볼 때에도 두 개의 협정들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조약의 강제성과 절차상의 불법성은 1905년 11월 17일에 늑약된 '을사조약'에서 한층 노골화되었다. 일제는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 갔는데, 이 조약이 일본군의 무력시위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국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조약은 무효에 해당된다. 거기에다 이 조약은 조약의 형식과 체결과정에서도 불법 투성이다. 첫째, 이 조약은 조약의 명칭이 없다. 우리가 '을사조약', '을사오조약' 혹은 '을사보호조약'이라 하지만 그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편법으로 붙여놓은 이름에 불과하다. 둘째, '을사조약'이 협정(Convention)으로 되어 있고 정식 조약(Treaty)의 형식을 빌리지 않은 것은 한 나라의 외교권을 이양하는 조약으로서는 마땅한 격

한국사 왜곡은 사실의 왜곡 뿐 아니라 역사 해석에서도 보인다.
소위 식민주의사관으로 대표되는 한국사 해석의 문제다.
식민주의사관은 일제가 한국의 진출과
침략 및 강점을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정당화하려는 역사관이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수준)을 갖고 있지 못했다. 셋째, 이 협정은 협상을 맡은 대표에 대한 위임(장)이 없었고, 작성된 협정문에 날인이 없었으며,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협정문에 대한 비준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소위 '한일합병조약'도 조약비준에 하자가 있었다. 황제의 공식적인 인감인 어새(御璽)와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함께 있어야 유효했는데 병합조약은 그렇지 않다. 당시의 공문서법에 따르면 황제의 서명이 빠진 이 서류는 가짜이거나 황제가 비준을 거부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제가 조약을 통해서 정당하게 한국의 외교권을 포함한 주권을 이양해 갔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말한다면 거짓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는 거의 예외없이 일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한국을 식민지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사학계에서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국권상실의 원인론** : 한국이 국권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굳이 구분해보자면 종래 외인론(外因論)과 내인론(內因論)으로 크게 구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외인론이 겹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강력한 외세침략에 대해서 이를 막을 만큼 나라의 역량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맞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 외인론을 구분해서 본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외인론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강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한국을 강점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제 침략에 맞서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맞섰으나, 19세기 중엽에 이미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일본에 적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외인론과 관련해서는 한편에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소위 사회진화론 사상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당시 일본을 내세워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막겠다는 앵글로색슨계의 후원전략이 있었음을 상기할 수 있다. 당시 서구의 세계진출을 합리화하는 이론 치고 사회진화론만한 것이 없었다. 자연계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불멸의 법칙이듯이, 세계사에서도 이런 법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진화론이야말로 서구사회의 아시아 아프리카 정복을 정당화해준 이데올로기임과 동시에 일본의 동

양제패를 정당화해주는 이론이기도 했다. 그것은 또한 한국 같이 뒤늦게 서구화에 뛰어든 나라에도 널리 보급되어 자신의 근대화와 부국강병의 논리를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 침략해 오는 제국주주의 세력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지적 풍토가 되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외인론의 대강이라면 내인론은 이러한 일본의 침략야욕과 국제관계 상황에서 한국이 무엇을 했는가, 결국 한국이 자신을 제대로 근대사회로 개혁하여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 요즘말로 하면 세계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식민지화의 단계로 전락한 원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내인론의 골자라고 할 것이다.

한말 서세동점의 파고가 일자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운동이 일게 되었다. 양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소위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과 개화운동, 그리고 민중들을 중심으로 한 반봉건반외세 운동이 그것이다. 보수적이었으나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위정척사운동, 개혁적이었으나 반외세적 성격에는 한계를 가졌던 개화운동, 반봉건 · 반외세의 성격이 강했으나 근대적인 성격에는 역시 한계를 보였던 민중운동, 이 세 운동은 외세의 침략을 앞두고 주관적으로는 민족주의운동을 벌였으나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적전의 분열을 면치 못했다. 항일의병운동에서 위정척사운동과 민중운동이 제휴했고 애국계몽운동에서 개화운동과 민중운동이 일부 제휴했으나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총체적인 운동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침략세력의 이간책에 말려든 결과이기도 했다.

◈ **일제의 통치방식** :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통치방식으로 식민지 한국을 다스렸다. 강점 초기의 무단통치나 3.1운동 이후의 더 악랄한 소위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의 황국신민화시기의 민족말살정책은 세계 식민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도쿄도(東京都)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를 비롯한 일본의 망언론자들은 "일본의 한국식민통치는 유럽보다 공평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식민지시기에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시혜를 베풀었다고 망발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에 덩달아서 박수를 치고 그 이론에 추종하면서 내재적 발전론과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들은 일제가 '개혁통치'라는 이름으로 남겨놓은 총독부 통계에 의거하여 수치상의 성장을 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식민지를 비육우(肥肉牛) 비육돈(肥肉豚)으로 키우기 위해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제공하며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육우와 비육돈이 깨끗한 주거환경과 의료시설,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소와 돼지인 자기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식민지에 교육시설, 교통망 확충,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식민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비육우 비육돈에서처럼 소 돼지를 키우는 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언급함에 무엇보다 간과하기 쉬운 것은 척양척왜의 기치를 들고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된 이래 의병운동을 거쳐 광복에 이르기까지 항일독립운동에 목숨을 잃은 수십만의 희생이다. 벌써 3년 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관계하면서 어제도 1894년 일제에 의해 희생된 976명의 희생자를 발굴한 바가 있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문제에서 일본인 납치를 부각시키면서, 일본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앞서 한국강점에 따라 이뤄진,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폭행, 인권유린, 독립군 살상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또 한국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이 민족분단이라고 할 때, 그 원죄는 바로 일제의 한국 강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 중에서 한국의 이 고통을 솔직히 자신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한국전쟁을 통해 2차 대전후의 파탄에서 사회경제적인 회생의 기회를 잡은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의 분단을 즐기면서 그것을 고착화하려 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상황을 역이용하여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여 군사패권국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때에 보인 일본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한국 강점에 대해 반성을 보이지 않는 일본은 역사를 왜곡함으로 한일관계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2001년과 2005년 그리고 올해까지 나온 후쇼샤(扶桑社) 판은 물론이고 올해 새로 검인정으로 인정된 지유샤(自由社) 간행의 역사교과서에는 그들의 식민주의사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고대에서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을 옮겨놓았는가 하면 중세사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속방(屬邦) 속국(屬國)이었음을 강조하여 독립국임을 부정하였다. 근대사에서는 앞서 망언의 패턴에서 보인 것처럼 그들의 한국강점을 정당화하고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주장한다.

한국사 왜곡은 사실의 왜곡 뿐 아니라 역사 해석에서도 보인다. 소위 식민주의사관으로 대표되는 한국사 해석의 문제다. 식민주의사관은 일제가 한국의 진출과 침략 및 강점을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정당화하려는 역사관이다. 여기에는 정체성사관(停滯性史觀), 타율성사관(他律性史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당파성이론(黨派性理論) 등이 대표적이다. 일제가 이런 식민주의사관을 유포, 세뇌화함으로 한국민은 자기 역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기역사에서 자신감을 잃은 한국인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 식민주의가 남긴 가장 악랄한 영향이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토록 하는 것이라면 일제는 이렇게 한국사와 한국사관을 왜곡함으로 한국인에게 지우지 못할 오점을 남겼던 것이다.

국치 100주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한국사에서 이민족(異民族)의 지배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오욕스런 시기에 대한 뼈저린 반성 위에서 국치100주년을 맞아야 한다. 그것은 곧 왜 그 시기에 우리가 외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그 이유를 먼저 규명하고 그 발견된 요인들을 오늘의 시점에 치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역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과 역사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 쇠망과 관련한 외인론을 규명하자면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 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외세에 빌붙어서 자기 나라를 능욕한 무리에 대한 역사적 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과 관련, 민간기구는 물론이고 정부가 스스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치100년'은 아직도 일본과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왜곡 및 식민주의사관의 시정은 물론이고 독도문제,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정신대 ·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징병 · 징용의 문제, 원폭피해자와 한국인BC급전범 문제, 시베리아억류자와 사할린동포 및 재일동포 문제 그리고 야스쿠니(靖國) 신사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정책과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 등의 해결이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와 관련된 만큼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국치100년'은 앞서 언급한 이같은 진실규명이라는 바탕 위에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가 마냥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세계가 지역에 따라 역내의 결속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동북아도 21세기를 맞아 역내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환경 · 금융 · 지역안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과거 제국주의시대에 남긴 침략적 유산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화적 신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와 영토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치100년'은 비록 한국과 관련된 것이지만 일본과 중국도 이 문제의식에 동참하여 선린으로서 역내의 결속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치100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쓰라린 경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사회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그 역사를 내 속에 녹여서 소중한 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식민지적 수치와 회상'을 떳떳하게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들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식민지적 경험적 자산을 세계에 공유하면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화 〈위대한 환상〉과 〈탈주한 하사〉,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시작

이두희 | 자유기고가

프랑스의 장 르누아르 감독은 1937년과 1962년 각각 1,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수용소 탈출을 소재로 하는 두 편의 작품 〈위대한 환상〉과 〈탈주한 하사〉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같은 감독과 비슷한 소재의 이 두 영화 사이에서 전쟁의 패배와 함께 피점령국가의 운명을 경험하게 된다.

영화 〈위대한 환상〉의 두 주인공은 귀족출신의 브왈디유 대위와 평범한 정비공 출신의 마레샬 중위이다. 정찰비행 도중 독일전선에 불시착한 둘은 포로로 잡혀 수용소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양한 국적과 출신을 가진 전쟁포로들을 만나 수용소 생활을 함께 하며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서부 전선과 함께 지난한 전쟁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여러 수용소를 거쳐 독

▲ 위대한 환상

탈주한 하사 ▶

일 귀족장교 라우펜슈타인이 통솔하는 수용소로 보내진다. 결국 브왈디유의 희생으로 마레샬은 부르주아 출신의 유대인 로젠탈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국경으로 향하게 된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당시 1937년의 프랑스 그리고 유럽은 이미 스페인 내전을 겪으며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파시즘 국가들의 군비확장에 대해서 초조함을 보이던 때였다. 지난 전쟁의 상처를 잊기도 전에 경제공황을 지나 다가오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사실 그렇게 모범적인 것은 아니었다. 열강들은 결국 히틀러의 독일과 1938년 뮌헨 협정을 맺고 말았던 것이다. 감독 장 르누아르는 훗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당시 '동시대인을 갉아먹고 있던 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비록 이 〈위대한 환상〉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에 한하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는 1930년대 당시 유럽의 풍경과 그 사회적 지형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의 제목이 말하는 위대한 환상이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곧 돌아가리라는 마레샬의 바람처럼 모든 포로가 꿈꾸는 자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결국은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영화를 보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혹은 잠시 동안에 지나지 않을 환상에 불과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몇 년 후 다시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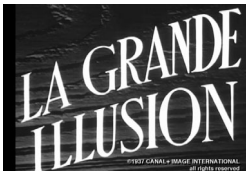
영화 〈탈주한 하사〉가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독일에게 항복한 직후이다.

> 영화 속에서 하사의 탈주는 계속 실패한다.
> 그러나 한편으로 영화의 마지막에 하사는 정작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탈출에 성공하고 마는 것이다.
> 여기서 이 결말의 의미, 혹은 이 마지막 탈출을 위한 준비로서 영화의 모든 과정이 다시 발견된다.
> 수용소의 생활 속에서 수치심과 분노와 함께 시험받은 동료애와 우정,
> 그리고 사랑을 통해 단지 그곳에 갇힌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그는
>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신하고 삶이라는 혼란과 우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겼고,
> 그 때 비로써 하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패배한 국가의 군인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이 포로 신세로서 부역을 해야 했던 '하사'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친구 바롤셰는 탈출을 포기하고 수용소에서의 자신의 지위에 안주하고 만다. 하사 역시 탈출을 포기하려고도 해보지만 우연히 만난 소녀와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은 노예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깨닫는다. 결국 바롤셰도 자신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하사는 모든 것을 다시 운명에 맡기고는 마지막 탈출을 기도한다.

하지만 이제 〈탈주한 하사〉의 수용소 탈출은 더 이상 〈위대한 환상〉에서와 같은 집으로의 귀환이 아니었다. 나치는 이미 파리를 무혈입성 했으며, 런던은 독일군의 폭격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영화의 틈틈이 삽입되는 뉴스릴 화면에서도 연합군의 반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독일 제3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하사의 탈출은 시작부터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감옥 바깥에서도 유럽은 이미 감옥이나 다름없었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서 하사의 탈주는 계속 실패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화의 마지막에 하사는 정작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탈출에 성공하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이 결말의 의미, 혹은 이 마지막 탈출을 위한 준비로서 영화의 모든 과정이 다시 발견된다. 수용소의 생활 속에서 수치심과 분노와 함께 시험받은 동료애와 우정, 그리고 사랑을 통해 단지 그곳에 갇힌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신하고 삶이라는 혼란과 우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겼고, 그 때 비로써 하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새벽

〈위대한 환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전쟁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급간의 수직적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이러한 경계들이 허물어질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에 맞서는 이 영화의 위대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두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믿음으로서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 위대한 환상

▲ 탈주한 하사

녘의 파리에 도착한 하사는 동료에게 말한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결국 장 르누아르 감독이 파리 해방 17년 후에 다시 되돌아본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시작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환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전쟁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귀족 브왈디유와 시민 마레샬이 함께 보았던 전쟁의 풍경에는 국가와 민족간의 수평적 대립뿐만이 아니라 사회계급간의 수직적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이러한 경계들이 허물어질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에 맞서는 이 영화의 위대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두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믿음으로서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게임의 법칙〉(1939)과 같은 예술영화의 고전으로 잘 알려진 장 르느아르 감독은 그의 필모그라피 안에서 때로는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한 참여영화의 태도 역시 취해왔었다. 편협한 당파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가 이해하고 재현하려고 애쓴 세계는 비록 깨어지기는 쉽지만 열린 그리고 투명한 세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역사적 결과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남겨둔 채로 전쟁의 경험과 함께 레지스탕스의 정신을 만난 프랑스는 이제 자신들의 영화적 유산을 통해서도 역시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게 된다.

‘현대사 연구 금기’는 독립운동사 말살 의도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해방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역사학도들에게 현대사는 일종의 금기 영역이었다. 이른바 국사학계의 태두가 만들었다는 이 금기는 표면상 현대사는 객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명분이었다. 청동기 시대가 되어야 고대 국가가 시작된다는 국사 교과서의 공식이 단군 조선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한국에만 있는 현대사 연구 금지 원칙 또한 독립운동사를 말살하기 위한 의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한참 후였다.

한 나라가 숱한 고초 끝에 독립을 쟁취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면 동시에 독립운동사 연구가 붐처럼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대 현대사 연구붐이 일어나 이 금기가 무력화되기까지 독립운동사는 소수만의 영역이었다. 그사이 생생한 증언을 남겨줄 살아 있는 전사들은 대부분 고통과 가난 속에서 저세상으로 가야 했다.

독립운동사는 무장투쟁사를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껏 국사 교과서는 무장투쟁보다 식민지 체제 내의 애국계몽운동이나 실력양성운동 등을 위주로 서술해왔다. 무장투쟁사는 마지못해 이름 정도

▲ 1961년 11월에 있었던 독립운동자동인회 발기 총회 기념식. 맨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째가 참의부 참의장을 역임한 김승학이고, 그 오른쪽 옆이 이강, 그 옆이 김창숙이다. 뒷줄 오른쪽에서 일곱째가 김승학과 함께 1963년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 참여했던 오광선이다.

적어주는 선이었다.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조직이었던 3부(참의부 · 정의부 · 신민부)에 대해 "독립군은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각 단체의 통합 운동을 추진하여,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조직하였다. 이 가운데 참의부는 임시정부가 직할하였다"(121쪽)라고 서술한 것이 전부다. 학생들은 삼부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 채 이름 외우기에 바쁠 뿐이다. 반면 같은 국사 교과서는 일제 때 큰 발전을 이룬 것처럼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인구는 늘어 갔다. 인구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10년대 말에 국내 거주 한국인은 1700만명 정도였다. 1930년에는 2000만명, 1942년에는 2600만명으로 늘어 갔다. 서울(경성)의 인구는 1920년에 24만명 정도였고, 1940년에는 93만명 정도로 4배가량 늘었다. 총독부는 서울에 도시 개수 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242쪽)

1920년대 개량 한옥이 나타나고 30년대에는 문화 주택이 생겼으며
40년대에는 총독부에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연립주택도 지어주었다는 기술이다.
식민지 백성들은 응접실과 침실이 따로 있고
아이들도 독립된 방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렸다는 기술이다.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친일파들의 주장이
교과서에 버젓이 되살아난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식민 정책 덕분에 갈수록 인구가 증가했고 서울이 근대도시로 탈바꿈했다는 기술이다. 국사 교과서는 세부적인 생활사까지 기술한다.

"…1920년대에 지어진 개량 한옥은 사랑방과 문간방이 없어지고, 대청마루에 유리문을 달고 니스와 페인트를 칠한 혼합형 가옥이었다. 1930년대 나타난 문화 주택은 2층 양옥으로 전에 없던 복도와 응접실, 침실, 아이들 방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생겨났다. 영단 주택은 1940년대 들어 도시민, 특히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지은 일종의 국민 연립주택이었다."(243쪽)

인적 청산 안돼 친일파 주장 버젓이

1920년대 개량 한옥이 나타나고 30년대에는 문화 주택이 생겼으며 40년대에는 총독부에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연립주택도 지어주었다는 기술이다. 식민지 백성들은 응접실과 침실이 따로 있고 아이들도 독립된 방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렸다는 기술이다.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친일파들의 주장이 교과서에 버젓이 되살아난 것이다. '니스와 페인트'라는 도료 이름까지 상세하게 적었으니 지면이 부족해 삼부의 활동 내용을 적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삼부는 생략되어도 좋은 조직이 아니다. 임시정부 산하였던 참의부는 1924년 결성 당시 5개 중대에 600여명의 무장병력이 있던 행정 · 군사조직이었다. 참의부의 전신인 통의부 의용군은 전성기에 2000~3000명이었다. 훗날 참의부 참의장이 되는 김승학은 약식 자서전 〈망명객행적록〉에서 1920년 8월 상하이(상해)에서 240여정의 무기와 탄환 수만 발을 천신만고 끝에 구입해 광복군에게 나누어주자 불과 3~4개월 만에 일제 기관에서 발표한 것만으

정의부도 마찬가지로 1925년 9월께 5개 중대 1개 헌병대
총 410명의 의용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많은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정의부 의용군 제1중대장으로서 여러 차례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했던
정이형은 1927년에 체포되어 1945년까지 19년간 투옥 생활을 하기도 했다.
국사 교과서는 삼부의 무장투쟁은 함구한 채
1940년 임정 산하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로도 교전 78회, 주재소 습격 56회, 면사무소 및 영림서 소각 20곳, 일제 군경 사살 95명의 혁혁한 전과를 올려 압록강 연안과 평안남북도 지역이 일시 전쟁터로 변했다고 전하고 있다. 참의부는 1924년 압록강을 순시하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의 배에 수백 발의 총탄을 퍼부어 혼비백산 도주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때 사이토 마코토 저격에 나섰던 참의부 1중대 1소대장 이의준(별명 한권웅)은 2년 후 체포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 1925년 3월에는 참의부를 급습한 일제 군경과 집안현 고마령에서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다 참의장 최석순 이하 29명이 전사하는 고마령 참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국사 교과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일제 때 크게 발전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정의부도 마찬가지로 1925년 9월께 5개 중대 1개 헌병대 총 410명의 의용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많은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정의부 의용군 제1중대장으로서 여러 차례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했던 정이형은 1927년에 체포되어 1945년까지 19년간 투옥 생활을 하기도 했다. 국사 교과서는 삼부의 무장투쟁은 함구한 채 1940년 임정 산하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국광복군이 본격 전투에 나서기 전 일제가 패망했으므로 학생들은 1920년의 청산리 · 봉오동 전투 외에는 별다른 무장투쟁 없이 연합국 승전의 부수물로 해방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독립운동사 연구가 금기가 되다 보니까 정의부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인 〈정의부연구〉가 나온 것은 1998년이고, 〈참의부연구〉가 나온 것은 2005년이다. 〈참의부연구〉는 그나마 참의장 김승학의 증손자가 만학으로 역사학에 투신해 거둔 성과이고 신민부는 아직도 박사학위 논문 하나 없는 형편이다.

중, 식민사학 '동북공정' 도구로 이용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해방 후 친일잔재 청산에 실패한 데서 기인한다. 1948년 수립된 새 정

정의부 제1중대장이었던 정이형. 정이형은 19년의 옥살이 끝에 해방과 동시에 석방되어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으로 친일파 처리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으나 1956년 불우하게 세상을 떠났다. ▶

부는 독립유공자 표창과 친일파에 대한 인적 청산, 그리고 일제가 만든 식민지배 이론에 대한 종합적 검토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참의부 참의장 김승학이 1964년 발간한 〈한국독립사〉의 서문에서 "건국 이래 이 국가 백년대계(독립유공자 표창과 친일파 청산)의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일제의 주구로 독립운동자를 박해하던 민족 반역자를 중용하는 우거를 범"했다면서 "(이것이) 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시정 중 가장 큰 과오이니 후일 지하에 돌아가 수많은 선배와 동지들을 대할까 보냐"라고 토로한 것처럼 친일파는 다시 중용되었다. 김승학은 "이 중대한 실정으로 말미암아 이 박사는 집정 10년 동안 많은 항일투사의 울분과 애국지사의 비난의 적(的)이 되었었다"고 평가했다. 친일 세력이 해방 후에도 사회 주도세력이 되면서 역사학계도 조선 후기 노론과 일제 식민사학을 계승한 학자들이 주도해 현재에 이르렀다. 그간 한국 주류사학계는 정체성론이니 타율성론이니 하는 총론으로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식민사학은 현재도 정설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을 보이고 있다. 1949년 4월 27일 건국공로훈장령이 대통령령 제82호로 제정 공포되고 그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초대 부통령 이시영 단 두 명만 서훈되었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혼자 받으면 비난이 일 것 같으니까 이시영 부통령을 끼워 넣은 것이라는 말들이

한국 사회 지배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종된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한국사 서술을 바로잡는 문제는 비단 한국 사회 내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 동북공정의 주요 이론은 대부분 일제 식민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중국이
일제 식민사학을 패권주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많았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60년의 4 · 19 혁명으로 무너질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독립유공자도 표창하지 않아 생존자는 물론 안중근 · 김좌진 · 이봉창 · 윤봉길 등 순국자 그 누구도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정통성 보완을 위해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를 표창했는데 공적조사위원회에는 조선사편수회 출신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 1963년부터는 김승학 · 김학규 · 김홍일 · 오광선 등 독립운동가들도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조선사편수회 출신 위원들에게 "임자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뭐 암마?"라고 묻자 얼굴만 붉힐 뿐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한때 통쾌한 에피소드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하면서 독립운동사는 말살되고 고대사는 일제 식민사관이 정설이 되었으며 노론이 애국적인 정당이었던 것처럼 서술되었다. 한국 사회 지배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종된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한국사 서술을 바로잡는 문제는 비단 한국 사회 내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 동북공정의 주요 이론은 대부분 일제 식민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중국이 일제 식민사학을 패권주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한 · 중 · 일 3국이 상호 호혜적인 평화적 역사관을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의 길이다. 시대착오적인 노론사관과 침략적인 일제 식민사관의 극복은 국내적으로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길이자 국외적으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 이 기사는 한겨레 7월22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발간될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V)

학생편집위원 조수정 인솔지

인솔지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조수정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장마 뒤, 8월 18일 오후 1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서거 당시 당신의 반쪽을 잃었다며 국민과 함께 애통해 하시던 그분은 3개월 만에 급히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우리는 또 한명의 국민 정치가를 잃은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열린 서울 광장 분향소를 찾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시던 '나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가 곳곳에 퍼지고, 한 켠에는 시민이 차린 조촐한 시민 분향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찾아왔었는지 이미 제단에는 국화가 가득 했고, 그 위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검은 옷차림의 민주당 의원들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헌화를 하고 절을 한 뒤 분향소를 나왔다. 어딘지 모르게 서글픔을 머금은 눈빛으로 분향소를 김구 선생님께서는 멀리서 바라보고 계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담소도 나누시는 친구였던 김구 선생님의 슬픔이 느껴졌다. 조심스레 선생님 곁으로 갔다. 잠시 뒤 인기척을 느끼신 선생님께서는 자그마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 하셨다.

"보이는가? 남녀노소, 상하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네. 이것이 살아생전 이 분께서 염원하던 통합의 모습 이었는데 마지막으로라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가셔서 다행이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각계 인사들이 조문을 위하여 한국을 찾는다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그 분의 죽음 앞에 잠시지만 평화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생님과 함께 서울광장 근처에 있는 찻집에 들어갔다. 분향소가 한 눈에 내려다 보였다. 분향소를 오고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던 김구 선생님께서 먼 옛날을 회상하듯 말씀을 꺼내셨다.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책이었어. 하지만 햇볕정책이 일구어낸 성과는 그 아무도 탓할 수 없을 걸세. 남북이 만나고, 남북이 오고가고, 그 어느 때보다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던 것은 모두 햇볕정책 덕분이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 학교에서도 북한말을 배우고, 새터민을 다루는 휴먼다큐가 줄줄이 방영되었다. 할아버지께서도 금강산에 다녀오시면서 가져온 과자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난다. 하지만 지금의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 불안하니 햇볕정책이 그립기만 하다. 퍼주기만 하는 정부, 친북파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따뜻한 햇볕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음지에 사는 균들을 죽이는 것 또한 햇볕이다' 김구 선생님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실지 궁금해서 여쭤보았다.

"선생님의 염원도 고 전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이 통일 아니십니까?"

"암 그렇지. 일제강점기에는 적을 미워하고 분해하고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지만, 적이 없는 현재에는 증오와 투쟁을 버리고 화합할 때지.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하는 법일세.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백해무익할 뿐이야. 우리는 지금 독립은 했지만 반쪽자리 독립일뿐이야. 진정한 독립은 통일을 이룬 뒤가 되겠지"

"그렇다면 햇볕정책이 적을 도와주는 행위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께서는 창문 넘어 분향소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물론 햇볕정책 당시의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 보낸 쌀과 소들이 모두 북한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같은 동포를 도와야 하지 않겠나? 햇볕정책 당시는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위기였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모두 굶어죽었을지도 모른다네. 이런 상황 때문에 서해교전사태와 같은

일촉즉발의 사건도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네. 북한 정부도 불안했던 거지. 무엇보다도 동포가 죽어가는 상황에서의 원조는 당위적인 문제였고 고 김대중 대통령이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네."

문득 전에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위에 남는 것이다.'

선생님께 앞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렸다.

"강대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우리는 북한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화를 해야 해.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말아야 한다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단절이 아닐세. 그들이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건 우매한 짓일세. 그들에게 공생하는 미래를 보여주어야 하네."

머리를 끄덕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끝난 이후 어느 샌가, 잊고 있던 북한이라는 존재가 다시금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이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이었다.

한편, 어느 언론에서 했던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룩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말하였다. 그만큼 DJ는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도 앞장선 분이셨다. 경상도 부산선거로 처음 정치권에 출마한 젊은 패기의 전라도에서 온 DJ는 박정희의 투표조작 부정선거로 결국 패배하였으나 그에 대한 뜨거운 민심이 두려웠던 박정희와 언론에 의해 견제를 당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신병인 지역감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다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그는 광주민주화운동 후 해외 유명 인사들의 적극적인 석방운동으로 감옥에서 해방되고 곧장 광주로 직행해 망월동 광주민주화 영령들과 만나 통한의 오열을 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 된 그는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가치의 상징이 되었고 해외언론과 세계지도자들은 가장 유명하고 지독한 독재자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그를 넬슨 만델라와 동격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20세기의 영웅' 으로 칭송하며 존경하였다.

김구선생님은 이러한 김 전 대통령의 이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의를 위해, 민족이라는 대의를 위해 활동할 때 역사는 반드시 그를 기억한다네. 김 전 대통

령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자유를 위한 개인적 희생은 귀감이 되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의 길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지."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라고 하였다.

나는 현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위기라고 한 그에 말에서 불현듯, 얼마 전 국회에서 표결처리된 미디어법이 떠올랐다. 대기업과 재벌신문사의 지상파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과 대형재벌신문사의 방송겸업을 허용하는 신문법,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명권을 문화부장관에게 주어 정부가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언론중재법등 7가지 사항과 정부발 저작권법이 포함된 미디어법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논리와 세계적 추세라는 홍보를 앞세워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메인 방송을 소유하게 된 대기업과 대형재벌신문은 결코 그들에게 불리한 보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입과 귀가 되어줄 공정언론사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해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였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데 달렸다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나오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나 특정계급이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임을 뜻하는 말씀을 통해 선생님의 의중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했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자국민 여론에 따라 미디어분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8월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국회에서 치러졌다. 부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못 이룬 꿈이 국회에 깃들길 바란다.

「독립정신」 답사단원 8.15 모임

지난 8월 15일 (토) 독립정신 답사단원 약 50여 명이 답사를 다녀온 후 첫 모임을 가졌다. 5기 후배 단원들의 건강한 귀국을 축하해주기 위해 1,2,3,4기의 일부 단원들도 동석한 자리였다.

종로에 위치한 '서울극장'에 모인 단원들은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했다. 국내 스키점프 대표선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중국에서의 추억과 여담으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독립정신」학생 답사단원 가평 MT

학생답사단원들의 방학이 끝나가는 지난 8월 22일~23일에 20여명의 독립정신 답사단원들이 경기도 가평으로 MT를 다녀왔다. 22일(토) 오전 10시 30분에 모인 답사단원들은 기차로 가평까지 이동하여 계곡에서의 물놀이 및 게임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저녁식사 후에 지난답사와 앞으로 독립정신 답사단의 활동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엠티에 참가 했던 5기 박상희 양은 "MT에서 여러가지 게임도 즐거웠지만, 지난 답사에 대해 되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독립정신 회보 46호의 '청년특집–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백범선생님 말씀해주세요' 기사에서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p44.–
문득 선생이 남긴 글귀가 떠올랐다
"눈 덮힌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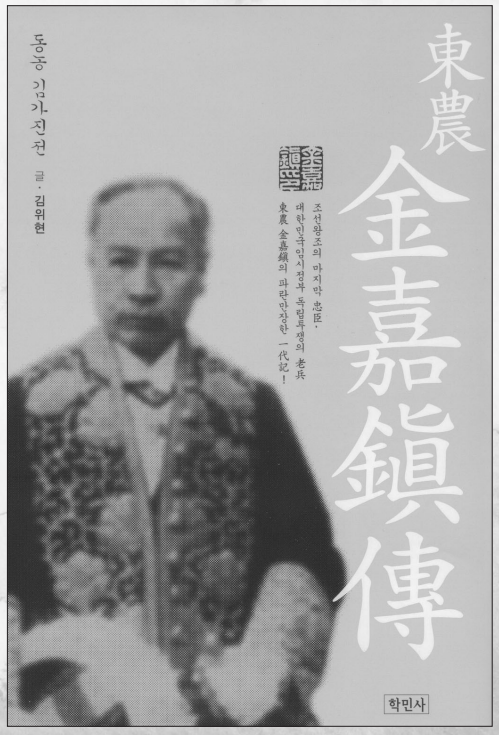
이 글은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인용하시던 글로,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기신 말씀이 아닌 서산대사의 선시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 만평

東農 金嘉鎭傳(동농 김가진전)

– 조선왕조의 마지막 忠臣,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투쟁의 老兵
東農 金嘉鎭의 파란만장한 一代記!

김위현 지음



이 책은 조선 말기 격변하는 시기에 태어나 스러져 가는 조선조의 중흥을 위한 제도혁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개혁 관료 김가진, 한일병합 후에는 나라를 잃은 망국의 유민으로 전락하면서 두문불출 곤고한 세월을 보내다가 삼일독립운동을 계기로 분연히 항일독립운동단체 조선민족대동단을 조직, 총재에 취임한 김가진, 삼일운동 후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상해로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동농 김가진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이다.

김가진은 다재다능한 인물이어서 사람마다 다른 각도로 기술하고 있다. 어떤 이는 관료 경력을 중시하여 고관을 지낸 사람으로, 어떤 이는 사회계몽운동과 교육에 정열을 쏟았던 사람으로, 또 어떤 이는 독립운동가로 기술하는가 하면 율시에 능하다 하여 시인으로, 또 독립문 현판, 비원 주련 등 많은 유작이 있어서 서예가로 기술하였으므로 그의 진면목을 찾기 어려웠다.

이 책은 그러한 여러 면을 통괄하여 김가진의 전 생애를 연대순에 따라 기술하였다. 후손들이 간직해온 《동농가장문서》에 김가진의 시문 및 글들이 다수 남아 있어 사실대로 기술할 수 있었으며,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 나타난 김가진의 상소문, 행적을 발굴하여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그의 일생을 평가했다.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 · 독립정신을 계승 ·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7,8월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7월	8월	회원명	7월	8월	회원명	7월	8월	회원명	7월	8월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2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석희	100,000	100,000	조용환	30,000	30,000
공성진	30,000	30,000	노웅래	30,000	30,000	이성배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곽태원	30,000	50,000	류시경	30,000		이신재	30,000	30,000	조정훈	30,000	30,000
권순갑	20,000	20,000	문재선		20,000	이영국	10,000	10,000	조회환	10,000	
김광림	30,000	30,000	민향선		10,000	이영춘	30,000	3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동완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용규	10,000	10,000	채의진	10,000	
김동현	3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용위	40,000		천정배		10,000
김보성	10,000	10,000	박의란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최인국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응국	5,000	5,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최정호		10,000
김영림	30,000	3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함세웅	30,000	30,000
김영범	50,000		빙인섭	30,000	30,000	이정재	100,000	50,000	허석현		5,000
김용덕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이종락	30,000	3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원규	10,000	10,000	송재웅	30,000	30,000	이창복	30,000	30,000	황용만	5,000	50,000
김원수		20,000	신영연	10,000	10,000	이학효	5,000	5,000			
김원유	50,000	50,000	신준수	20,000	20,000	이항증	30,000	30,000			
김위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이호헌	20,000	20,000			
김위현	50,000	50,000	안영찬	5,000	5,000	이화순	30,000	3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양기홍	25,000		인순창	30,000	30,000			
김재홍		10,000	엄근학	10,000	10,000	장봉훈	30,000				
김정육	50,000	50,000	엄기남	50,000	50,000	장은기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장필순	10,000	10,000			
김진경	5,000	5,000	오은주	20,000	20,000	장홍	20,000	20,000			
김진모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전북진안이수원	30,000				
김진영	10,000	10,000	우상호	30,000	3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진현	30,000	50,000	유원목		2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충환	5,000	5,000	윤경자	30,000	3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학근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행식	100,000		이규중	30,000	30,000	조기식	10,000				
김희선		10,000	이규호	30,000	30,000	조명숙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병윤	10,000		조영록		50,000			
남영호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조용준	30,000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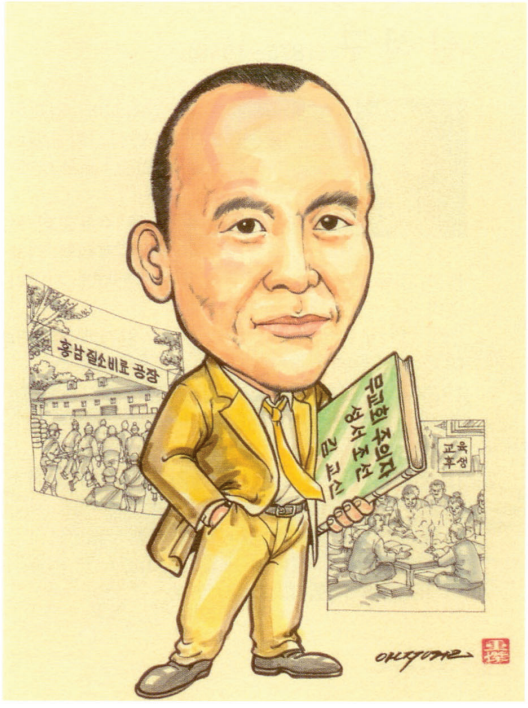
◈ 2009년 특별회비

회원명	7월	8월
김선현	1,000,000	
시공테크	5,000,000	
이재승	200,000	
㈜아팩철강		2,000,000
㈜오토	6,000,000	6,000,000

◈ 2009년 기념관 회비납부

회원명	7월	8월
채의진	10,000	
차영조	10,000	10,000

항일



김교신 (1901~1945)

1920년대 초반 동경유학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무교회운동을 전개하던 우치무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우치무라의 성서연구회 동문인 송두용, 함석헌 등과 함께 조선성서연구회를 조직하여 우리말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으며, 1927년 귀국하여 월간 기독교 잡지 《성서조선》을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무교회적 관점에서 성서를 철저히 해석하였고, 고정란인 '권두언'에서 애국신앙교육을 다루었다.
1942년 3월호에 그가 쓴 〈조와(弔蛙)〉가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성서조선》이 강제 폐간당하고 그를 비롯하여 함석헌, 송두용 등이 검거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44년 7월 흥남질소비료공장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의 처참한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이 공장에 입사하여 교육 후생 주택 등의 문제를 보살펴주다가 1945년 45세의 나이로 급서했다.

친일

최태용 (1897~1950)

창씨명 : 후쿠모토 타다신(福元唯信)
일본에 건너가 동경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우치무라 문하에서 성경연구를 했으며, 1928년 명치학원대학 신학부를 마치고 1932년 귀국한 뒤에는 '조선의 신학'을 제창하면서 지지자들을 모아 1935년 1월 기독교조선복음교회를 창립하였다.
1941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대장상 가야 등 일본고위 관리들에게 '조선자치정부론'을 역설하였다. 1942년 10월 친일잡지 《동양지광》에 기고한 〈조선기독교회의 재출발〉이라는 글에서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은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섬기듯 일본 국가를 섬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교역자들과 글라이더 모형비행기 공장을 세워 군수공장 인가를 받아 교인들을 사역시키기도 하였다.
해방 후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걸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1948년 10월 '농민회'(현재의 농협) 부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SAMSUNG

Anycall
TALK PLAY LOVE

왜 아몰레드인가?

- 100% 색재현력
- 잔상 없는 빠른 반응속도
- 180° 시야각
- 국내최대 디스플레이

보 는 폰 의 시 대
자 체 발 광
아 몰 레 드 로 보 라

국내최대 3.5형 디스플레이
DivX 플레이어
HAPTIC UI 2.0

자체발광 HAPTIC AMOLED